

20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 개요

- 20대는 면학시기 이면서 입직시기, 결혼적령기 등 자신의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다양한 변수를 품고 있는 시기임.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환경은 대다수 20대 여성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며, 20대 여성들의 취업률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30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3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러한 경력단절 이후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음. 또한 여성 니트족 수는 남성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육아나 가사 일을 하고 있어 니트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남성에 비해 심각하게 많아짐.
- 육아나 가사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여 여성 니트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 실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역시 나올 수 없을 것임.
 - 육아, 가사가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님을 전제로 함.
- 이에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대 여성 니트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우선 취업률과 실업률, 특히 니트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니트족에 대한 정의와 산정기준, 유형, 규모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변수로서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함.

1.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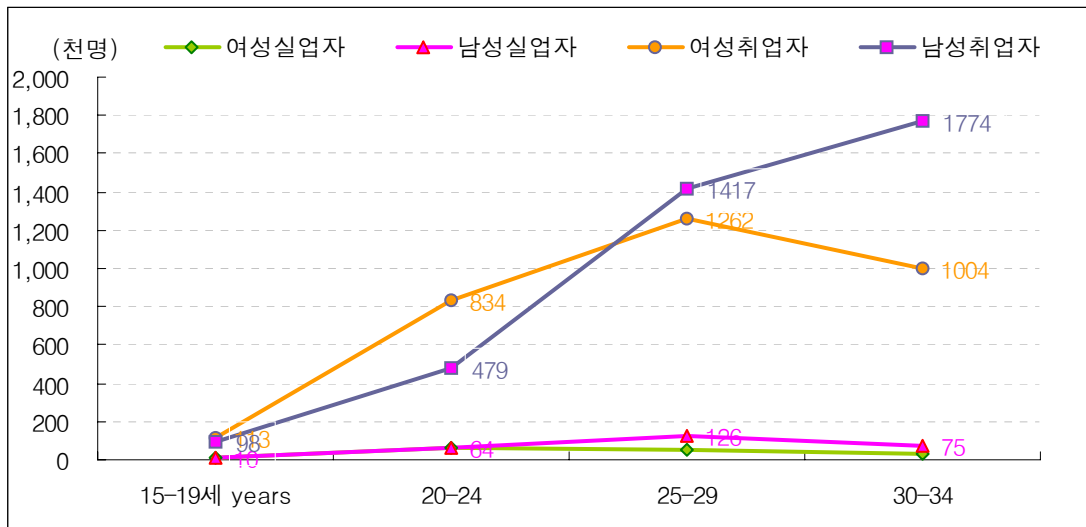
- 2007년 경제활동조사의 경제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총 취업자 수는 23,432,757명이며 여성 9,825,887명, 남성 13,606,869명으로 남성의 수가 많음. 실업자 수는 782,955명(여성: 266,052명, 남성: 516,902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954,243명(여성: 9,994,372명, 남성: 4,959,870명)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총 미취업자는 15,737,198명(여성: 10,260,426명, 남성: 5,476,772명)으로 여성의 수가 많음.
- 청년층(15~34세) 취업률을 살펴보면 2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남성에 비해 낮아지기 시작해서 30대에 들어서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며 낮아짐. 반면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2,30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표 1>(비율) 및 <그림 1>(인구 수) 참조).

<표 1>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¹⁾ 및 비경제활동인구²⁾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5-19	여	112570	7.35	11352	0.74	1407833	91.91
	남	97981	5.87	10306	0.62	1562212	93.52
20-24	여	834457	52.55	61979	3.90	691549	43.55
	남	478834	41.74	63652	5.55	604562	52.71
25-29	여	1261934	65.36	53894	2.79	614841	31.85
	남	1416590	71.29	126400	6.36	443995	22.35
30-34	여	1003818	52.04	32600	1.69	892412	46.27
	남	1774417	88.52	74768	3.73	155427	7.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그림 1>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성별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 취업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이런 현상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20대 후반부터 남성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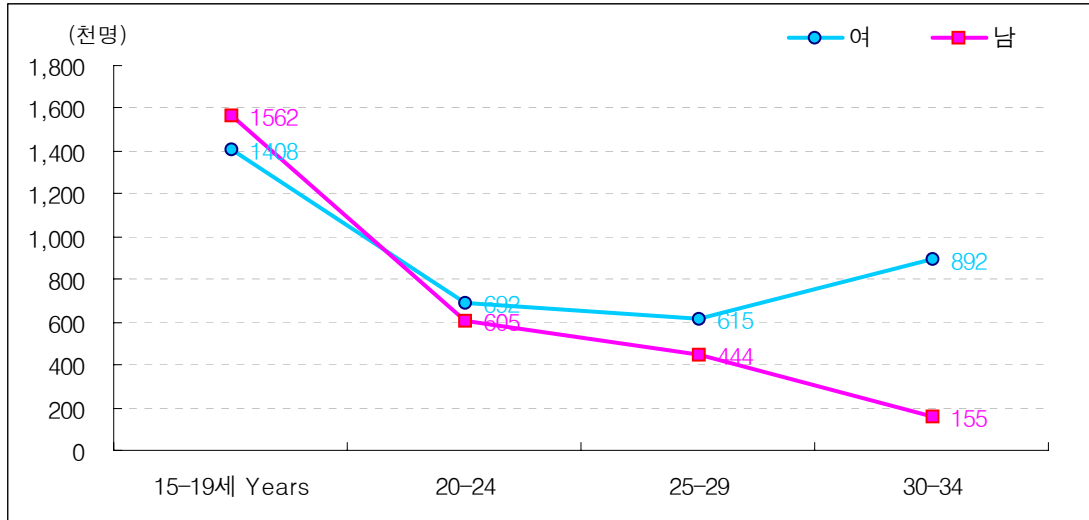
○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데 비해 여성은 30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늘어남(<표 1>(비율) 및 <그림 2>(인구 수) 참조). 다시 말해서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임.

1)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통계청, 웹 DB).

2)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통계청, 웹 DB).

- 따라서 낮은 취업률 문제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니트족,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등의 문제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실업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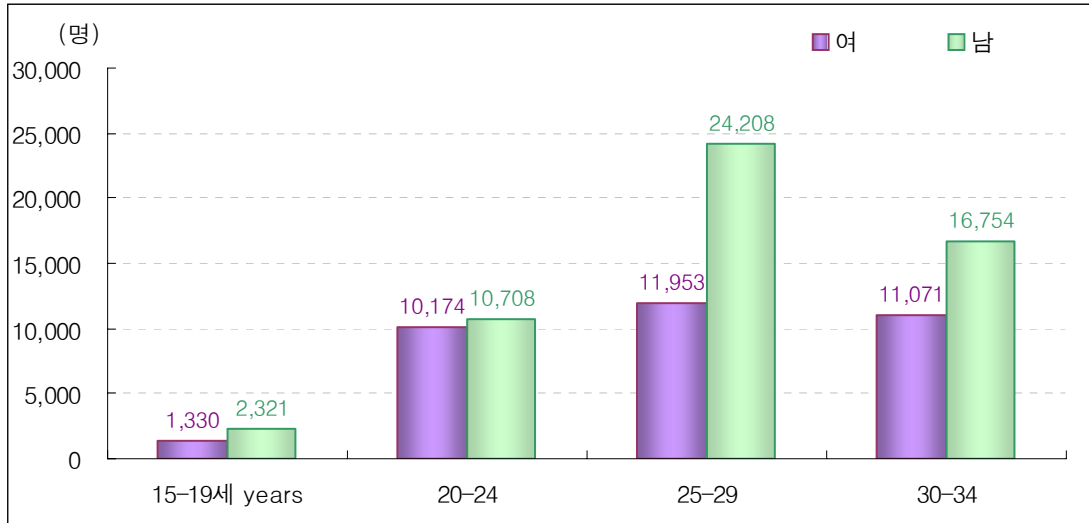
<그림 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성별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통계청).
- 청년층(15~34세) 중 20대 후반에 구직단념자 수가 가장 많으며 이 시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직단념자 수가 적은 것은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육아와 같이 1년 이상 구직을 단념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단념자에 포착되지 않음.

<그림 3> 청년층 구직단념자 성별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2. 20대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분석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4> 참조), 2003년 약간의 감소세는 있었지만 2000년 877만명이던 여성 취업자가 2007년에는 983만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 2000년 ~ 2007년 여성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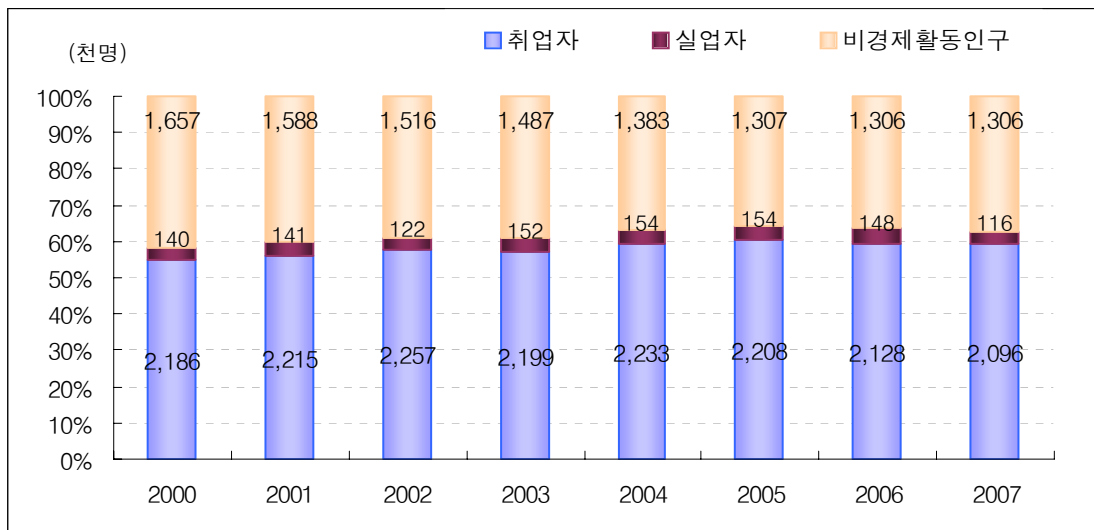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0-2007)

○ 한편 여성 취업자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청년층의 경우 취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그림 5> 참조). 특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

는 20대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20대 여성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약간의 취업률 증가는 있었으나 여성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 자체의 수는 줄었음을 의미함.

- 20대 여성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다소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7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4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비율은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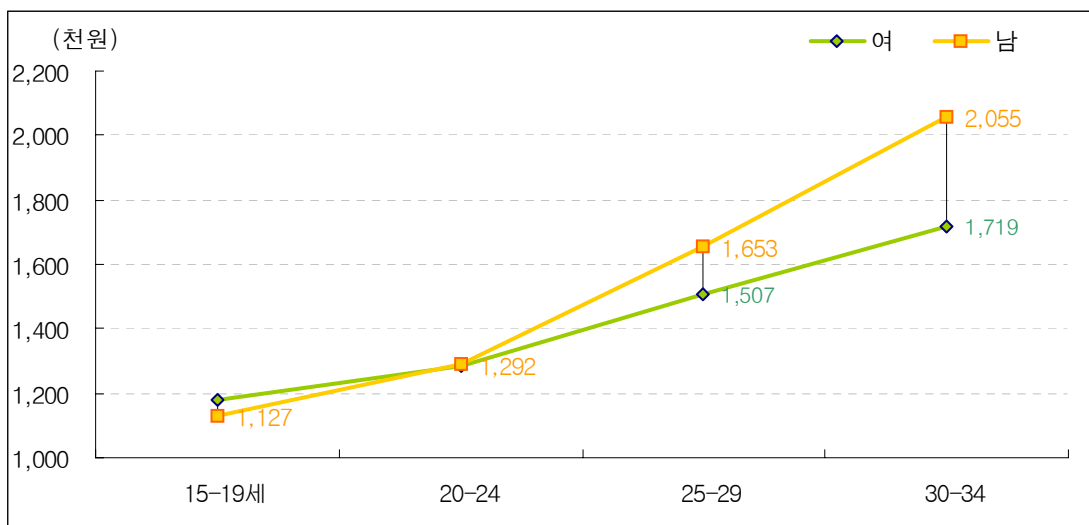
<그림 5> 2000 ~ 2007년 20대 여성 경제활동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0-2007)

- 낮은 취업률과 함께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림 6> 청년층 성별 임금차이



자료: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05),DB웹 서비스

-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6> 참조) 10대 후반에 잠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을 앞서고 있으나 20대 초반부터 남성이 여성을 앞서기 시작해서 점차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30대 초반에 여성은 남성의 83.6%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됨. 또한 남성의 임금이 가장 높아지는 40대 후반에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54.3% 수준임(<표 2> 참조).

<표 2> 연령별 남녀 임금

	남		여	
	월급여액 평균	근로자수	월급여액 평균	근로자수
~ 19세	1127140	9487	1181305	25766
20 ~ 24	1291876	172843	1281778	353425
25 ~ 29	1653100	718937	1506704	537290
30 ~ 34	2054740	912728	1718524	317326
35 ~ 39	2442121	835414	1673935	237833
40 ~ 44	2650624	677081	1525149	215384
45 ~ 49	2718430	566399	1476377	192769
50 ~ 54	2685160	359601	1412355	123492
55 ~ 59	2345716	206334	1276214	62718
60세 ~	1741201	185202	1199335	40167
전 연령	2249024	4644026	1496631	2106170
전체	월급여액 평균	2014265	근로자수	6750196

자료: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05),DB웹 서비스

- 한편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학력임.

<표 3> 2000년 ~ 2007년 4년제 대학 남녀 졸업자 수

		졸업자수	졸업자수(남)	졸업자수(여)	여성비율(%)
2000	전국	214,498	113,573	100,925	47.05
	서울소재대학	59,692	30,375	29,317	49.11
2001	전국	239,702	127,259	112,443	46.91
	서울소재대학	66,321	33,960	32,361	48.79
2002	전국	244,852	126,879	117,973	48.18
	서울소재대학	66,786	33,210	33,576	50.27
2003	전국	258,126	134,695	123,431	47.82
	서울소재대학	69,542	34,784	34,758	49.98
2004	전국	267,058	135,067	131,991	49.42
	서울소재대학	71,372	34,203	37,169	52.08
2005	전국	268,833	136,593	132,240	49.19
	서울소재대학	69,903	33,060	36,843	52.71
2006	전국	270,546	137,827	132,719	49.06
	서울소재대학	69,468	32,807	36,661	52.77
2007	전국	277,858	145,116	132,742	47.77
	서울소재대학	71,430	34,105	37,325	52.25

자료: 통계청, 교육통계(2000-2007),DB웹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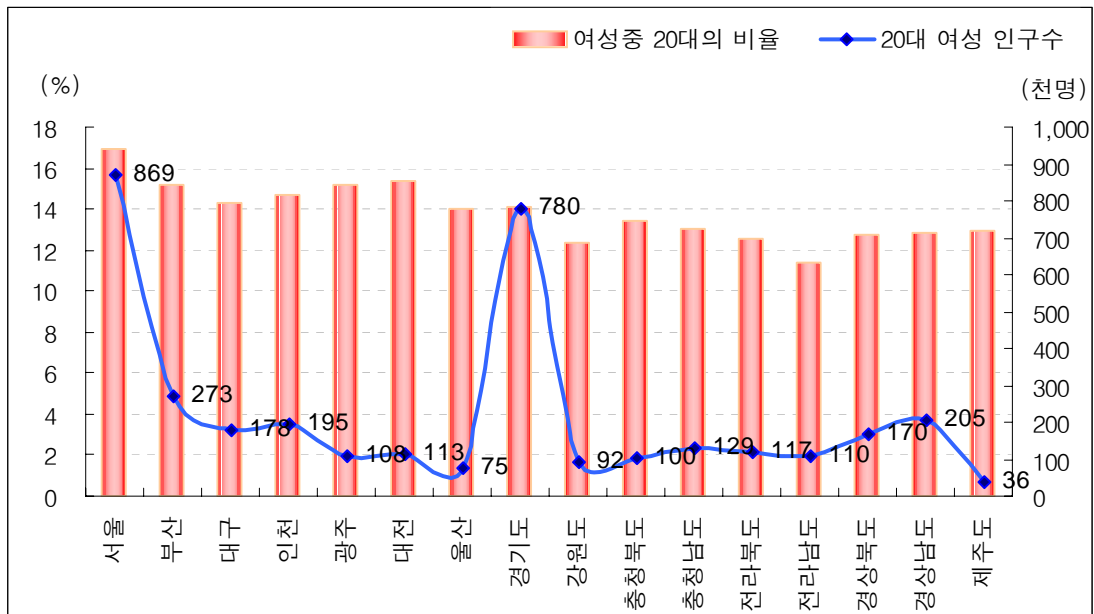
○2000년에서 2007년까지 4년제 대학의 남녀 졸업자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수는 남성이 다소 많이 나타나지만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졸업자 수는 2004년 이후 여성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음(<표 3> 참조).

3. 서울지역여성 경제활동상태 분석

□ 서울은 20대 여성 청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 전국 20대 여성의 24.5%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20대 여성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서울 전체 인구 중 8.5%(서울시 인구 10,192,710명 중 20대 여성인구 868,55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의 16.5%(서울시 여성인구 5,129,522명 중 20대 여성인구 868,553명)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대 여성 비율을 보이고 있음(<그림 7> 참조).

<그림 7> 지역별 20대 여성 인구수 및 여성 중 20대 비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통계(2007년)

○ 그러나 지난 10년간 주민등록통계를 분석해본 결과(<표 4> 참조) 서울지역 여성 중 20대 여성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997년 여성 인구 중 20대 청년층은 18.5%였으나 2007년의 경우 14.4%로 감소하였고 서울 지역의 경우도 서울 지역 여성 인구 중 20대가 1997년 20.9%를 차지한데 비해 2007년에는 16.9%를 차지함). 20대 남성의 경우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평균적인 20대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표 4> 서울 및 전국의 20대 여성 비율 변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여성 중 20대 비율	20.9	20.4	20.2	19.9	19.5	19.2	18.8	18.2	17.8	17.4	16.9
전국여성 중 20대 비율	18.5	17.9	17.5	17.2	16.8	16.6	16.1	15.6	15.3	14.9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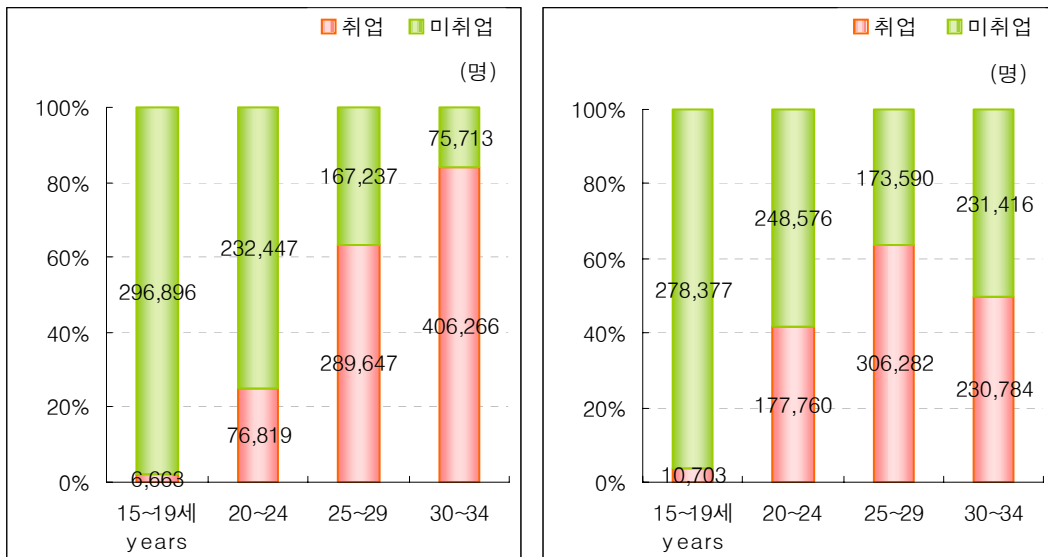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통계(1997-2007)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³⁾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낮아지는 시기가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늦게 나타남. 20대 후반까지도 남성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남성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크게 떨어짐(<그림 8> 참조).

<그림 8> 서울지역 청년층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성별비교

<서울지역 남성 경제활동상태>

<서울지역 여성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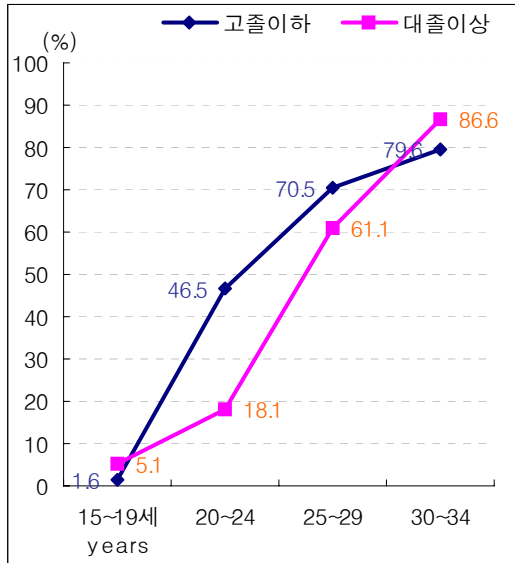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2005), 원자료 분석

- 서울지역 20대 여성의 경우 76% 정도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학력차이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음. 20대 초반 까지 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20대 후반부터 대졸 이상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 서울의 경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남(<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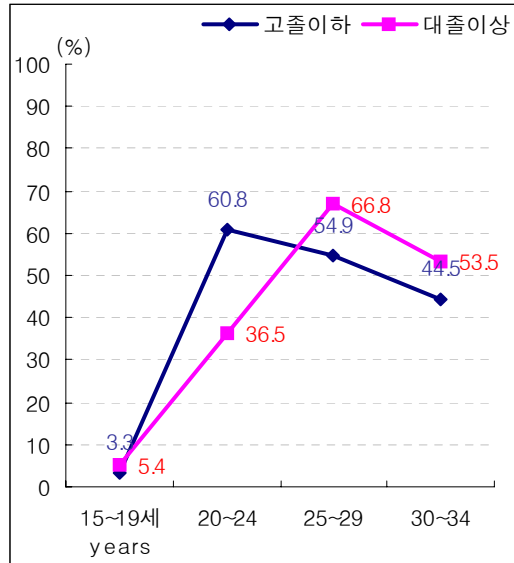
3) 인구총조사 5%(2005년)에서 구해지는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수치는 인구총조사(5%)의 자료가 5년마다 생산된다는 점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산출의 개념구분 차이로 인해 '경제활동조사'의 경제활동인구와 수치상의 차이가 약간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 자료원인 '경제활동조사'의 경우 서울지역의 연령, 성별, 학력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분석이 불가능해 이 글에서는 서울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구총조사(5%)를 원자료 분석하여 사용함.

<그림 9> 서울지역 청년층 학력별 취업률

<서울지역 남성 취업률>



<서울지역 여성 취업률>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2005), 원자료 분석

4. 니트(NEET)

- 니트(NEET)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을 줄인 말로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함.
- 니트족의 문제는 그들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령대의 무업자 문제와 차이를 가짐.
- 니트족의 사회적 영향으로는 1) 니트족 자신의 소득감소, 2)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 사회적 부담가중, 3) 각종 사회문제 발생, 4) 잠재 실업률 상승, 5)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이부형, 2005, 5쪽) 등이 거론되고 있음.
- OECD에서도 니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제안하고 있음.
- 니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4세, 15세에서 29세, 15세에서 34세 등으로 보고 있음.
- 본고에서는 남성의 경우 군입대 기간이 포함되는 점, 최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 여성의 경우 30대에 들어서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20대 여성이 곧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15세에서 34세 까지를 니트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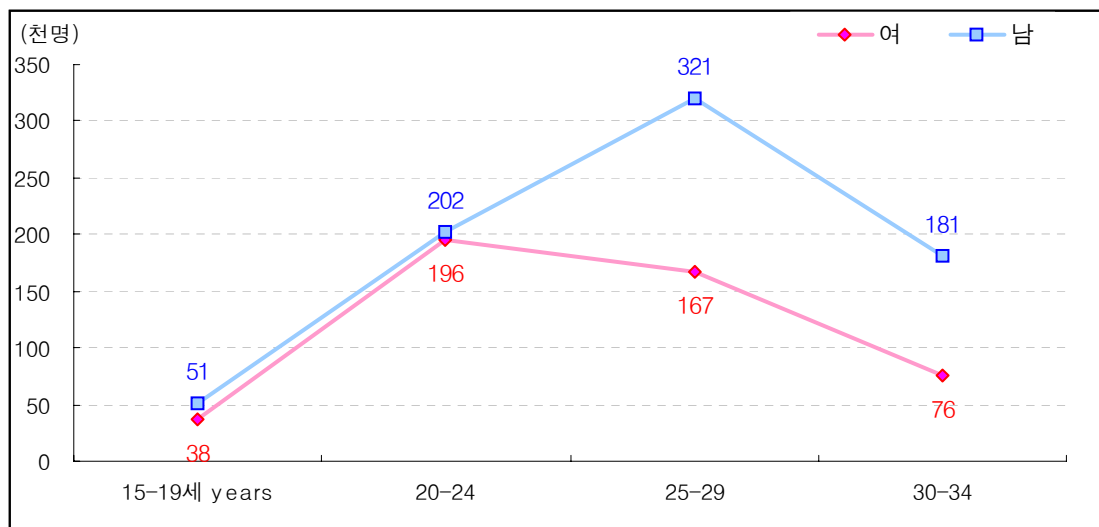
□ 또한 니트는 취업자가 아닌 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에서 '지난 1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주로 제외함.

○ ①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 통학자, ②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등 통학자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③ 심신장애, ④ 가사, 육아, ⑤ 군입대 대기

○ 본고에서는 위의 ① ~ ⑤를 모두 제외한 경우와 함께 ① ~ ③ 만을 제외한 경우 즉 가사, 육아와 군입대 대기를 제외하지 않은 경우도 알아보고자 함. 가사나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을 니트쪽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가사와 육아와 같은 활동을 여성의 역할로 보기 때문임.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주로 제외시키고 있으나 OECD의 경우 가사, 육아를 특별히 일하지 못할 사유로 보고 있지 않음.

□ 먼저 취업하지 않는 자 중에서 가사와 육아를 포함해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 통학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등 통학자, 심신장애를 제외한 경우(<그림 10>, <표 5>참조) 니트의 수는 123만 정도이며 남성은 75만 여성은 48만임. 20대 후반부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니트의 연령별 남녀 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표 5> 니트의 연령별 남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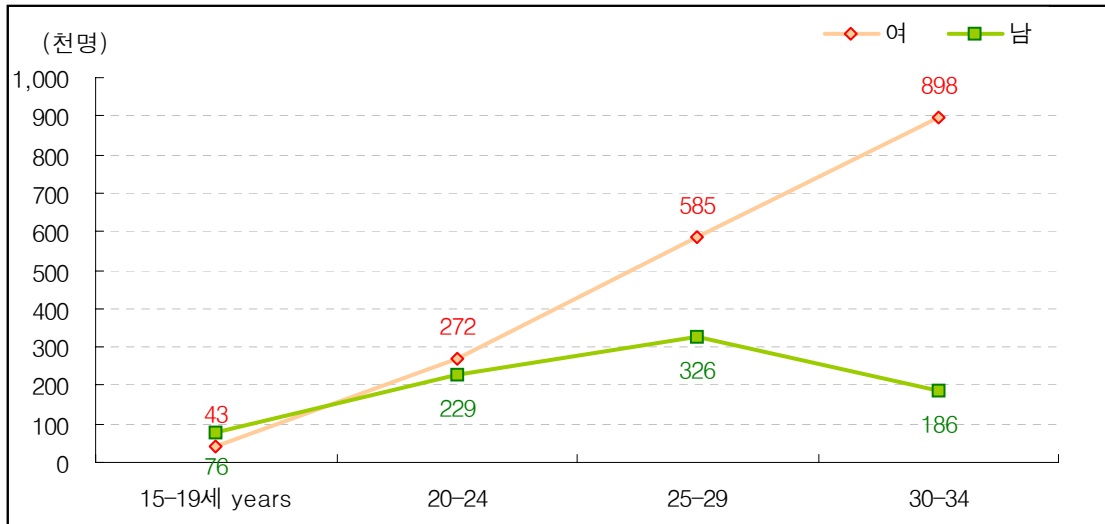
	15~19세	20~24	25~29	30~34	전체
남	50,971	202,305	320,682	180,587	754,545
여	37,747	195,924	166,922	75,707	476,300
전체	88,718	398,229	487,604	256,294	1,230,8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 다음으로 취업하지 않는 자중 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등의 사유를 제외시키지 않은 경

우를 살펴보면(<그림 11>, <표 6> 참조) 전체 니트 수는 262만 정도로 크게 증가하며, 남성은 82만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180만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함. 여성의 경우 특히 20대 후반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30대 초반에는 남성에 비해 5배가량 많아짐.

<그림 11> OECD형 니트(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의 연령별 남녀 비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표 6> OECD형 니트(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의 연령별 남녀 비교

	15~19세	20~24	25~29	30~34	전체
남	76,244	229,292	325,823	186,278	817,637
여	42,535	271,677	585,364	898,460	1,798,036
전체	118,779	500,969	911,187	1,084,738	2,615,6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2007), 원자료 분석

□ 기존 연구들을 통해 여성 니트족 수는 남성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한 결과이며 육아, 가사로 인해 니트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그 수는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니트 산정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 니트의 수가 지나치게 적게 인식되고 있음은 분명함.

- 목차 -

◎ 개요

1. 경제활동상태
2. 20대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분석
3. 서울지역여성 경제활동상태 분석
4. 니트(NEET)

<표 1>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표 2> 연령별 남녀 임금

<표 3> 2000년 ~ 2007년 4년제 대학 남녀 졸업자 수

<표 4> 서울 및 전국의 20대 여성 비율 변화

<표 5> 니트의 연령별 남녀 비교

<표 6> OECD형 니트(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의 연령별 남녀 비교

<그림 1>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성별비교

<그림 2>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성별비교

<그림 3> 청년층 구직단념자 성별비교

<그림 4> 2000년 ~ 2007년 여성 취업자 추이

<그림 5> 2000 ~ 2007년 20대 여성 경제활동 추이

<그림 6> 청년층 성별 임금차이

<그림 7> 지역별 20대 여성 인구수 및 여성 중 20대 비율

<그림 8> 서울지역 청년층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성별비교

<그림 9> 서울지역 청년층 학력별 취업률

<그림 10> 니트의 연령별 남녀 비교

<그림 11> OECD형 니트(가사, 육아, 군입대 대기 포함)의 연령별 남녀 비교